시원한 여름 만끽！

제 3 회 연변캠핑관광축제 개최

7 월 4 일 저녁, '2025 연변주 여름철 피서 · 휴가 시즌' 계렬 행사인 제 3 회 연변캠핑관광축제가 룡정시 량전백세스포츠휴일풍경구에서 개막되였다. '산뜻한 연변 · 시원한 여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 연변주 내외 관광객들이 몰려와 캠핑의 매력을 느끼고 다채로운 여름 행사를 체험했다.

량전백세스포츠휴일풍경구 마케팅 경리 장금휘는 "개막 첫날 할빈, 대련, 장춘 등 지역의 400 여명의 캠핑애호가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면서 "관광지는 약 2 만평방메터의 잔디밭을 활용해 텐트캠핑구역, 문화체험구역, 음식구역및특산품전시구역, 구매구역 등 기능별 공간을 조성해 최대 수용 인원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 첫날 관광객수는 5,000 명을 넘어섰으며 사흘간 열린 축제에서 커피문화시장, 별빛영화관람, 잔디음악파티 및 캠핑문화 공유 살롱 등 일련의 행사들이 륙속 펼쳐졌다.

대련에서 온 캠핑애호가 오애군씨 가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연변은 생태자원이 량호하여 캠핑, 건강여가, 자가용관광 등 야외활동에 매우 적합할뿐더러 밤에는 캠프 파이어(篝火晚会)를 즐길 수 있어 체험감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 연변주 여름철 피서 · 휴가 시즌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이번 캠핑 축제는 여름 피서지로서의 연변의 량호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다. 개막식에서는 'G331 최고의 국경 풍경 려행', '신비의 숲속 생태 힐링 투어' 등 여름철 피서 · 휴가 시즌을 위한 8 대 테마 관광 코스가 발표되였다. 해란명주탑의 새로운 전망 체험과 '연길 공주' 체험형 성장기 등 새로운 재미, 새로운 공간은 관광객들에게 끊임없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춘 려행 특별 패키지'를 출시해 발해고진, 연길공룡왕국 등 약 40 개의 주요 풍경구와 공연을 포함한 관광지 특가 티켓, 놀이시설 할인 등 70 여개 항목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연변에는 량전백세스포츠휴일풍경구, 돈화조선족생태마을캠핑장, 버섯마을 등 24 개의 표준화된 캠핑기지가 건설되였는데 총면적은 124 만 7,000 평방메터, 총투자액은 3 억 3,800 억원으로 900 개의 캠핑텐트를 설치해 하루 최대 수용인원이 2 만 3,000 명에 달하는바 장비 전시 · 판매, 민속체험, 음악파티, 과학교육연구 등을 통합한 캠핑산업 체인을 형성했다.

/ 김영화기자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려강

려강은 시간을 잊게 하는 곳이자 한번 가면 떠나기 싫은 곳이기도 하다.

산 고장의 특색도 보유하고 물 동네의 경관도 자랑하는 려강에서는 시내물이 모든 주민의 집앞을 흘러지나 문을 열면 흐르는 물이요, 창문을 열면 휘늘어진 수양버들이 반겨준다.

운남의 서북부, 사천과 서장 접경지대에 위치한 려강은 나시족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은 려강은 '고산 우의 봄도시'라 불린다.

천여년전의 남녕시대에 벌써 어느 정도의 규모를 형성한 려강고성은 사면에 산발이 둘러서고 맑은 물이 감돌아 흐르는 아름다운 옛 도시이다. 해발고도 2,400 메터의 둔덕에 자리잡은 려강은 북쪽으로는 상면산, 서쪽으로는 사자산, 남쪽으로는 문필산과 이웃하며 그 사이로 맑은 강물이 흐른다.

려강은 우리 나라 력사문화의 옛 도시중 유일하게 성곽이 없는 고성이다. 려강고성은 성을 쌓지 않은 도시 사면의 험준한 지세를 리용해 탑문관과 석문관, 구문관, 태자관, 구당관 등 다섯개의 관문을 두었다.

려강을 관리하는 기관이였던 토사(土司) 관아는 도시의 남쪽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많은 왕궁의 전각과 정원을 거느린다. 고성의 북쪽은 사방가를 중심으로 하는 상가이다.

려강고성의 디자이너는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성 동북쪽의 흑룡담에서 흘러나와 남쪽으로 흐르는 옥천수는 려강고성이 가까워지면 동하와 중하, 서하 세갈래로 나뉘여 려강으로 흘러들고 이어 수많은 갈래로 나뉘여 건물을 안고 돈다.

2, 3 메터 너비의 시내물 량쪽에는 푸른 버드나무가 자라 맑은 물우에 록음과 그 록음 속의 예스러운 고건물이 거꾸로 비껴 아름다운 조화의 극치를 이루며 이 고산지대에서 집집마다 문앞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강남의 도시를 만든다.

물이 있으면 다리가 있기 마련이다. 려강고성의 수많은 물길 우에는 도합 345 개의 다리가 놓여져 밀도로 보면 1 평방키로메터의 땅에 평균 93 개의 다리가 있는 셈이다.

려강의 다리들은 모양도 다양하다. 풍우교와 아치석교, 석판석교, 목판교 등 풍격이 상이한 다리들이 려강을 명실공히 '교성', 다리의 도시로 만든다.

명나라 때 려강 목부의 두령은 목득이였다. 그는 산중에서 넓은 세상을 내다보고 산악지대를 벗어나 중원의 당시 명나라 때 국도에 이르렀다.

명나라 도읍 북경에서 그는 눈부신 자금성에 감탄하고 짙은 중원문화에 매료되여 나시로 돌아온 후 중원지역의 생산기술과 문화교육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중원의 명사들을 널리 사귀였다.

그는 또 건축과 광산, 공예 등 여러 분야의 내륙 인재들을 려강에 초청했는데 그 결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원 황궁의 풍격을 가진 왕성, 즉 명대 목부였다.

부지 40 만평방메터의 목부는 지세를 따라 줄지은 충의방과 의문, 만권루, 광벽루, 옥음루 회랑, 그리고 수십개의 마당과 사자산의 어원을 거느려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건물로 '려강의 자금성'이라 불린다.

일반 백성들의 민가는 다수가 문을 동쪽으로 내고 홀이 넓고 크며 창틀에는 꽃과 새 등 무늬를 조각해 짙은 문화적 분위기를 풍긴다. 려강고성의 사람들은 또 정원에 꽃나무를 심고 분재를 가꾸기를 좋아해 려강에는 꽃나무가 없는 곳이 없다.

려강고성의 거리와 골목에는 모두 붉은색의 사암으로 된 바닥재를 깔아 장마에는 질척거리지 않고 맑은 날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 세대를 걸쳐 걷고 밟아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바닥은 고성과 조화를 이루어 고성 고유의 볼거리가 되였다.

고성의 중심에 위치한 사방가에는 예로부터 상가가 집중돼있고 거래가 흥성한 곳이자 명절날 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거리와 골목에는 오색돌을 깔아 다채롭다.

려강고성의 거리를 거닐면 거리의 량쪽에 가게들이 즐비한데 입구에서 주인이 호객 행위를 하는 가게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손님의 행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손님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서서 어느 한 상품에 눈길을 주면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상품의 력사와 용도, 가격을 설명한다.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면 그들은 바깥세상이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듯 두터운 책 하나를 들고 쏘파에 비스듬히 기대여 앉아 천천히 책장을 한장씩 넘긴다.

려강고성의 심벌인 만고루는 목조건물로 되였다. 이 만고루의 높이는 려강나시족자치현 33 만명의 현민을 대표하는 33 메터에 달한다.

날아갈 듯 건듯 들린 13 개의 지붕 귀퉁이는 옥룡산의 13 개 설봉을 의미하고 지붕까지 뻗은 16 개의 나무기둥은 나시족의 전설중 하늘을 연 개천 9 형제와 땅을 가른 벽지 7 자매의 전설을 대변한다.

만고루에 올라서면 동쪽으로 아담한 다리와 맑은 물가에 자리잡은 려강고성이 한눈에 보이고 북쪽으로는 저 멀리 신기하고 아름다운 옥룡설산의 빼여난 경치를 볼 수 있다.

려강고성의 북쪽에 위치한 옥룡설산은 남북방향으로 35 키로메터, 동서방향으로 12 키로메터 뻗어있는데 정상에는 일년 사시절 하얀 눈이 덮여있어 옥으로 된 룡이 구름 속에 드러누운 듯 황홀하다.

옥룡설산에서는 얼음폭포를 망라한 고대 지모의 무궁한 변화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산수는 거의 다 섭렵한 명나라 려행객 서하객도 아름다운 려강에 매료되여 려행수기에서 려강을 이렇게 묘사했다.

"맑은 물이 나지막한 둔덕을 돌아 흐르며 벌판을 적시고 또 다른 한갈래 시내물이 동산에서 흘러나와 더 넓은 땅을 관개한다. 그리고 서남쪽의 문필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동쪽으로 흐르며 삼생교에서 다른 두 물줄기와 합류해 넓은 강물을 형성한다."

/ 국제방송

연변 국내 여러 지역서 문화관광 선전

관광산업을 '1 조원급' 산업으로 구축할 데 관한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발전 목표를 시달하고 문화관광시장에 대한 관광 선전의 추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며 여름철 관광 시즌을 다잡아 전통 관광객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흥 관광객 시장을 넓히기 위해 6 월 29 일부터 7 월 2 일까지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은 길림성문화관광청의 포치에 따라 길림성 문화관광 여름 신상품 설명회 및 려행사 기업 토론회에 참가하고 심양, 북경, 제남, 정주 등 곳에서 문화관광 테마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설명회에서 길림성은 우세 자원, 새로운 명소, 특색 놀이방법 등을 둘러싸고 차별화된 제품을 소개하여 여름 관광시장의 강력한 활력을 보여주었다. 활동에서 길림성이 중점적으로 출시한 2,711 개 로선이 호평을 받았으며 가족, 견학, 양생, 피서 등 테마 제품은 려행사 기업과 OTA 플래트홈에서 온라인 여름철 로선에 참고를 제공했다. 활동에서 참가자들은 관광지의 로인친화 봉사, 제품 매력, 보상정책 등을 중심으로 많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건의를 제기했다.

연변주는 여름철 우월한 문화관광자원을 내걸고 국내 중점 관광객 자원 지역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여름철 문화관광시장의 번영을 추진해왔다. 선전활동에서 조선족의 풍정, 패션거리, 휴양온천, 피서캠핑, 특색미식 등 연변의 다양한 여름활동과 독특한 민속풍정은 회의 참가자들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다.

/ 본지종합

유룡만워터파크 오픈, 만명 물놀이로 피서

7 월 1 일, 룡정시 유룡만워터파크가 정식으로 올해 개장을 알리며 관광객들을 위한 여름철 '피서 모드'에 진입했다.

유룡만워터파크는 룡정시 로투구진 보흥촌에 위치해있는데 총면적이 17 만 8,000 평방메터로 민속체험, 양생레저, 생태관광이 결합된 대형 민속워터파크이다.

내부에는 대형 생태주차장, 특색식당, 간식구역, 야외 바비큐구역 및 휴계공간이 마련되여있다. 워터파크에는 슈퍼 해일 풀, 가족 슬라이드 등 총 18 개의 다양한 물놀이 오락시설이 설치되여있어 모든 년령대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다.

워터 슬라이드 구역에서는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함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어린이놀이구역에는 다양한 워터슬라이드와 분수에서 물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물속에서 뛰놀면서 무더운 여름철의 한때를 보냈다.

올해는 특별히 '해양놀이성', '해양도전풀', '인형뽑기' 등 오락기구를 추가했는데 키 1.2 메터 이하(포함) 어린이와 70 세 이상 로인은 보호자 동반 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유룡만워터파크 리사장 부성빈은 개장 당일 약 1 만명의 관광객이 워터파크를 찾았다면서 8 월 25 일까지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김영화 기자 / 사진 류비비

연길버드와이저맥주미식축제 11 일 개막

2025 제 15 회 연길버드와이저맥주미식축제 및 제 2 회 전자상거래문화축제가 오는 11 일 연길 청년광장에서 개막한다.

'맛과 멋의 연길, 열정의 버드와이저'를 주제로 한 이번 맥주미식축제 및 전자상거래문화축제는 버드와이저(중국)판매유한회사길림성지사, 버드와이저(연길)맥주유한회사에서 주최하고 연길시국제전자상거래협회, 연길시료식업계협회에서 협찬하며 7 월 11 일부터 27 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축제는 맥주미식축제구역, 자동차전시판매구역, 민속문화창의체험구역, 커피문화레저구역 및 전자상거래문화축제구역 5 개 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장춘시금미래실업광고유한회사 총경리 염홍빈은 7 월 9 일에 축제장 건설을 마치고 설비 조률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며 11 일 개막전에 예정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맥주미식축제구역은 면적이 2,100 평방메터로 동시에 1,000 명이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일상 문예공연와 테마의 날 등 활동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제 2 회 전자상거래문화축제, 민속문화창의체험, 커피문화 등 계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버드와이저(중국)판매유한회사 길림성지사 길림동구 시장부 경리 우야지는 이번 맥주미식축제 및 전자상거래문화축제는 문화관광 소비 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고 연길시의 '신소비', '신전자상거래', '야간경제' 산업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다며 연길의 음식, 민속문화, 커피 등 다양한 업태를 융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피서 명소를 제공하고 시각과 미각의 향연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화기자